



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제약/바이오/헬스케어: 이달미, 3773-9552



대기업들의 바이오 사업 진출 증가

- 삼성과 SK가 바이오 사업에서 성공하면서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연이어 바이오 사업 진출에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롯데, 카카오, 두산, 현대중공업, GS, CJ, OCI 등의 기업들임.
-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기업은 롯데인데, 작년 8월에 롯데지주 ESG 경영혁신실 산하에 신성장2팀(바이오팀)과 신성장3팀(헬스케어팀)을 신설한 이후 지난 4월 주총에서는 바이오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원직 상무를 신성장2팀으로 영입.
- 또한 최근 '롯데바이오로직스'를 신설하고 CDMO사업에 진출을 선언했는데 향후 10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CDMO시장 내 10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밝힘.
- 지난 13일에는 미국 뉴욕주에 연간 3만5천리터 규모에 달하는 BMS 바이오 생산공장 인수를 2,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, CDMO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.
- 다가오는 6월에는 미국 '바이오USA'에도 참가 의사를 밝혀 데뷔전을 치를 예정.
- 롯데그룹에서는 이번 BMS 공장 인수를 통해 진입장벽을 넘어섰고 향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후발주자로서 기존 player들을 어떻게 따라 잡을 지가 관건.

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들

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